

수요예배 및 구역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2일(수) 저녁 7시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50장(통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사무엘상서(삼상)17:37-49(p.438) 가족 중에서
- 말 씀 / “내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배워봅시다.

1. 다윗이 용기있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과 대응은 어떠했고, 다윗이 결국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37-40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이 목동시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37절상). 이런 다윗의 말에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면서(37절하) 자기 군복과 놋 투구와 칼을 주지만(38-39절상), 다윗은 그 복장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서 그 모든 것을 벗어 취하지 않고(39절하)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와 시내에서 골라낸 매끄러운 돌(물매돌) 다섯 개를 목자의 제구 즉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40절). 다윗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전의 경험이 있지만 그 믿음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원하지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2. 골리앗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나아왔고, 다윗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응했습니까?(41-44절)

약 3M의(여섯 규빗 한 뼘)의 키에 놋 투구를 쓰고, 60Kg(오천 세겔) 무게의 비늘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하고, 베틀채 같은 창자루와 7Kg(600세겔)의 철 창 날을 가진 놋 단창을 어깨 사이에 맨(참조 4-7절) 골리앗은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갔는데(41절), 다윗이 잘 보이지 않아 둘러보다가 보이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전사의 이미지와는 달라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42절). 골리앗은 다윗의 막대기만 보고 자기를 개로 여기며 나아왔냐고 하면서 자

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43절) 자기에게 오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다윗(살)을 양식으로 주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44절).

3.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었으며,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45-47절)

다윗은 골리앗의 이런 말과 태도에 대해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자신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즉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서(45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겨 주실텐데 그러면 쳐서 이기고 목을 베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 무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46-47절상).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를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47절).

4. 이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48-49절)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도발에 골리앗이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게 되었고(48절), 다윗은 골리앗을 기다리고 있다가 골리앗이 가까이 올 때에 빨리 마주 달려가며 물매돌을 꺼내어 물매로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돌이 이마에 박히게 되고 결국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49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방인의 우상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무기와 자기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 골리앗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으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간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게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나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요일5:4).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 1.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 2.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의 삶과 정상적인 예배의 삶으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소서.
- 3.개학을 맞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셔서 알게 하소서.
- 4.청년부와 유치부에 좋은 교역자를 보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 5.조합과의 합의안대로 잘 마무리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 6.제20대 대통령선거(3/9)와 전국동시 지방선거(6/1)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써 주소서.

● 마무리 기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양/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 주기도문 / 다같이